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5일 월요일 음 8월 10일 (2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90%	제 주	90%
90%	성 산	90%
80%	고 산	80%
90%	서귀포	9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4/28℃
모레	구름 많음	22/28℃

흐리고 비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27℃, 낮 최고기온은 29~30℃로 예상된다.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강풍과 풍랑·너울에 유의해야겠다.

	해뜸 06:10 해짐 18:55		달뜸 15:08 달짐 —:—
물때	만조 04:34 19:25		간조 00:01 11:46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위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미국서 추락위협 비행 '공포의 5시간'

조종사 착륙 후 경찰 체포

미국 미시시피주 투펄로 상공을 선회 중인 경비행기. 연합뉴스

미국 중남부 미시시피주(州)의 투펄로 지역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 위협 비행을 하다 불시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종사는 투펄로 리저널 공항 운영업체인 투펄로 항공 직원으로, 그는 착륙 직후 중절도 및 테러 위협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이 무사히 종료됐지만, 주민들은 5시간 넘게 공포에 떨어야 했다.

3일(현지시간) 투펄로 현지 경찰에 따르면 주말인 이날 오전 5시 8분께 투펄로 항공에서 10년간 일해온 직원인 코리 웨인 패터슨은 공항에 있던 쌍발 엔진의 비치크래프트 킹 에어 C90A 경비행기를 혼자서 몰래 훔쳐 타고 이륙했다.

패터슨은 항공기 연료 공급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전날 밤 이 항공기에 연료를 가득 채워둔 상태였다. 이륙 15분 뒤 그는 리 카운티의 911에 직접 연락해 '웨스트 메인 지역의 월마트에 추락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그는 투펄로 지역을 비롯해 인근 블루 스프링스와 홀리 스프링스 국유림 상공 등을 5시간 이상 선회했다.

결국 패터슨은 기수를 북쪽으로 돌려 인근 리플리 지역의 콩밭에 오전 10시 20분경 불시착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건 일 편집국장 이 윤 형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현 영 종
편집부국장

공기업 혁신, 제대로된 인사부터

'1만 시간의 법칙'. 하루 3시간씩 10년 동안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 지난 1993년 '재능논쟁의 사례A'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설파했다. 그는 베를린 음악아카데미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연습시간을 살폈다. 이를 분석한 결과 4000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은 음악선생, 8000시간은 훌륭한 연주자, 1만 시간은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천재라도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 논지다.

1만 시간의 법칙이 널리 알려진 것은 '아웃라이어'란 책에 인용되면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 맬컴 글래드웰이 지난 2008년 펴냈다. 저자는 빌 게이츠, 비틀즈, 모차르트 같은 천재들의 공통점을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찾았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국내에서도 직장인들의 필독서로 등극하면서 40만부 이상 판매됐다. '응답하라 1994'에서 극중 칠봉이가 존경하는 야구선수를 거명하며 "1만 시간 이상의 노력과 고통으로 마침내 성취한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자신을 다잡으며 유명세를 더했다.

최근엔 이와 상반된 연구결과도 등장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 연구팀은 학술 분야에서 노력한 시간이 실력의 차이를 결정짓는 비율이 4%에 불과하며, 음악·스포츠 등의 분야는 20~25%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어떤 분야든 선천적인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大家)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두 연구 결과 모두 치열한 노력을 전제로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행정시·공기업 등의 인사를 놓고 말들이 많다. 적잖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사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탈원전 인사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임명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역시 예외는 아니다. 두 행정시장에 이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에 잇따라 핵심 측근이나 선거공신들을 임명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특정 인사만 보지 말고 모든 인사가 마무리됐을 때의 그림을 봐달라"는 호소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는다.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은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일성으로 '공기업 혁신'을 천명했을까 싶다. 제주자치도 역시 지난해 말 경영이 방만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지도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얼마 전엔 한 공기업에 경영혁신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처럼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는 한 공기업 혁신은 불가능하다. 문외한을 선장에 임명해 놓고 태평양을 무사히 건너길 기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립기반 마련과 함께 재능있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공기업 혁신의 시작이다.

열린마당

제주 올레길 놀멍 쉬멍 ᄀᆞ치걷게 마씸

고 상 선
제주올레아카데미 자원봉사자

'아카자봉 함께걷기'란 전국의 올레꾼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제주와 올레길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올레길의 추억과 행복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으로, 매월 15일 경에 다음 달 자원봉사자(이하 자봉)를 모집해서, 올레길 걷기를 희망하는 참가자들과 함께 이제 걷기 좋은 계절이다. 지난 여름 뜨거웠던 폭염은 뒤로 하고 아름다운 제주올레길을 '아카자봉'과 ᄀᆞ치 걷게 마씸.

'아카자봉'이란 제주올레 아카데미 자원봉사자의 줄임말로 전국에 있는 올레꾼에게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알리면서 함께 걷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제주올레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제주올레 아카데미 일반과정을 수료하고 제주올레 아카데미 총동문회에서 진행하는 소양교육을 받으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아카자봉 함께걷기'란 전국의 올레꾼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제주와 올레길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올레길의 추억과 행복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으로, 매월 15일 경에 다음 달 자원봉사자(이하 자봉)를 모집해서, 올레길 걷기를 희망하는 참가자들과 함께 출발 장소에서 참가자들을 확인하고 올레길 난이도와 중식장소를 안내한 다음 함께걷기 시작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의해 참가인원이 수시로 바뀌지만, 엔데믹 상황인 최근에는 많은 참여자가 올레길에서 놀멍 쉬멍 함께 걷고 있다.

제주올레 아카자봉과 함께라면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놔두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즐거움과 좋은 추억 남길 카메라만 있으면 된다. 오늘도 제주올레 아카자봉은 올레꾼들과 함께한다.

벌쏘임 다발지역 알려드립니다

배 민 주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전국적으로 최근 3년 평균 벌 쏘임 사고는 5248건이 발생했고, 이중 1827건(34.8%)이 추석 전 30일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자료가 보여주듯 한식 및 성묘, 가을 산행을 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벌 쏘임 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방청은 5년간 구급출동데이터를 기반으로 벌 쏘임 다발지역을 도출한 '랩블러'라는 무료 어플을 통해, 산길 벌 쏘임 위험지역 경보서비스를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스마트폰에 위 어플을 설치한 사용자가 벌 쏘임 위험지역 100m 이내에 접근하면 "벌 쏘임 다발지역입니다. 주의하십시오"라는 경고 음성과 메시지가 전송된다. 사용자는 경고 메시지 확인 시 위치를 확인하고 벌이나 벌집이 있는지 주위를 살펴야 한다.

벌이 공격할 때는 벌을 쫓아내지 말고 머리부위를 감싼 채 자세를 낮추고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벌에 쏘인 후 어지럽거나 두통이 올 경우 과민성 쇼크를 의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누워서 다리를 들어주는 자세를 취하고 이상 반응이 느껴지면 119에 신속히 신고해 처치를 받는다. '과민성 쇼크' 발생 시 현장에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사업을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필요시 언제든 119에 도움을 청하고, 위의 안내 사항들을 숙지해 가을을 행복하게 만끽하길 바란다.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 3~5년생
황금향 ..... 3~5년생
한라봉엠 ..... 3~6년생
남진해 .....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댕유자, 아마나스, 레몬, 탱자1~2년생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4~5년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귤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귤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 8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궁천 변이지(오하라배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